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나는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감상한다. 좋은, 안 좋은 내용인 영화로 구분 하는데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의 작가는 영화를 감상할 때 영화에 나와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상하여 작가가 엄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로, 대학교 때 경영학과로 진학한 전형적인 문과의 시선에서 책을 읽으며 인문학으로부터 보던 우물 안에서 관점이 넓어졌다. 인문학에선 인간의 내성을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범죄자의 뇌를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많은 범죄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발표한다.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과 과학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인문학은 천년 전부터 성을 쌓아 이제 우리는 그 성을 보수하고 새로운 성과를 발견한다. 과학은 기초 공사를 끝낸 뒤 계속 짓는 집이다. 언제 공사가 끝날지는 알 수 없다. 공사 중에도 단지를 지어 새로운 이론을 발명한다.

 현재 내가 배우고 있는 경영학도 사회과학이다.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통계치를 내어 원인을 발견하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과학의 매력을 알 수 있었다.